

# 삼겹살로 상추·깻잎 싸먹을 판

### 대형마트 상추 100g 2930원...삼겹살 2450원보다 480원 비싸 늦은 가을 장마·폭우로 출하량 감소...깻잎도 삼겹살보다 비싸

늦은 장마와 폭우로 출하량이 줄어든 상추 값이 삼겹살 가격을 추월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7일 기준 광주 대형마트에서 팔린 청상추 100g 가격은 2930원으로, 2주 전인 이달 3일(2490원)에 비해 17.7%(440원) 상승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같은 날 광주 대형마트에서 조사한 삼겹살 100g(국산 냉장) 가격은 2448~2450원으로, 상추 100g 가격이 480원 가량 비쌌다.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2주 전보다 15.2%(-440원) 내렸다.

이처럼 삼겹살보다 일부 상추 가격이 높아 상추

를 삼겹살로 싸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잡은 흐린 날씨 탓에 정상품 출하물량이 줄어든 상추 가격이 지난 달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17일 기준 청상추 100g 가격은 2300원으로, 지난해 추석 명절 1일 전 가격(1100원)보다 109.1%(1200원) 치솟았다.

2주 전(2000원) 보다는 15% 상승한 가격이다.

양동시장에서 팔린 삼겹살 100g은 지난해 명절보다 10.2%(220원) 오른 2380원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보다 2.9~7% 상승한 2448~2450원으로 집계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상추의 경우 잡은 흐린 날씨로 인한 생육부진 등 품위저하로 정상품 출하물량이 감소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둔 관례적인 소비위축 영향으로 보합세에 거래되고 있으며, 연휴로 인한 급식 및 요식업소의 주문량 감소 등 소비둔화가 예상돼 약보합세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겹살의 하나인 깻잎 가격(100g)은 2주 전과 같은 25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 가격과 같다.

미나리 100g 값은 900원으로, 전년 800원보다 12.5% 상승했다. 지난해 가격 급등을 겪었던 대파(1kg)는 지난해보다 28.6%(-1000원) 내린 2500원이었고, 양파(1kg)는 20%(-500원) 하락한 2000원이었다.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값은 전년 1만3000원보다 46.2%(-6000원)나 하락한 7000원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명절 증후군” 안마기로 풀어요

2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9층 가전 디지털 전문관에서 안마의자 등 '휴식가전'을 체험하고 있다. 이 매장은 상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명절 증후군'을 앓는 고객들을 겨냥해 이달까지 사은품 증정 등을 진행한다. <롯데쇼핑 제공>

## 나주 배 '신화·창조' 미국 수출길 나선다

우리 품종으로 키워낸 나주 배 13.6t이 미국 수출길에 나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측은 최근 나주배원에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신화' '창조' 품종 나주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으로 첫 수출되는 물량은 '신화' 품종 10.2t

, '창조' 3.4t 등 총 13.6t이다.

이들 배는 농협무역을 통해 미국 전역 70개 점포를 보유한 한인마켓으로 수출된다.

'신화' '창조' 배 품종은 '신화를 창조하자'는 뜻을 지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는 지난 2009년 이 품종을 최종 선발해 2015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했다. 신화 창조 품종은 9월 상순이나 중순께 출하할 수 있다. 저온에 강하고 맛이 좋으며, 신고 배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빨라 배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전남농협은 나주배 신화와 창조 신품종 육성보급사업이 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주배원에농협과 생산자조직 육성 및 산지관리로 배 수출활성화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신관 연결통로 전시공간으로 변신



광주신세계는 지하 1층 본관-신관 연결 통로를 고객 동선의 편리함을 높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스페셜 스테이지’ 운영 11월 19일까지 이이남 전시

광주신세계 본관과 이마트 광주점에 있는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지하 1층 연결통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하고 '스페셜 스테이지'라 이름 붙여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측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과 연결 통로가 맞닿아 생기던 고객 불편함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신세계는 통로와 주차 공간을 분리하고 고객 화장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도 새로 교체했다.

통로는 앞으로 미디어아트 작품 등이 전시되는 '스페셜 스테이지' (Special Stage)로 운영된다.

오는 11월19일까지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이미지 판타지아: 광주신세계 x 이이남 스튜디오'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 공간에는 5개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미디어 아트 작품을 이동 중에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기획된 첫 번째 전시에서는 이이남 작가의 작품 11점을 감상할 수 있다. 고흐, 모네, 클림트, 쇠라 등의 명작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하 1층 공간은 문화 공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 공간으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23일까지 '블랙야크 패밀리 특집전'과 '키친웨어 특집전'이 진행되며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는 남성 캐주얼 '본' 가을·겨울 특가 대전이 펼쳐진다. 행사장에서는 모든 품목이 기존 가격보다 60~90% 저렴하게 선보여진다. 같은 기간 플렉스, 프로젝트M, 15MINS 특집전도 진행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명실상부 지역 쇼핑 1번지로서의 라이프 스타일 랜드마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고심하고 있다"며 "고객 욕구를 충족하고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라도 흥어 ‘롯데온’으로 선물하세요”

### 26일까지 랜선 맛 기행 특산물 등 최대 40% 할인

온라인 몰 '롯데온'이 전라도 흥어를 내세운 '전국 랜선 맛 기행' 기획전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롯데온은 이 기간 동안 전국 맛집과 연계한 가정 간편식 '밀키트', 지역 특산물 300여 종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울스기전 목포 저온 숙성 국 내산 흥어' (500g·3만2900원)가 대표 주자로 나선다.

이외 전국 대표 상품으로는 태백 통리시장 '동해 가마솥 한우 설렁탕', 경북 안동 '전데이 안동점 닭', 대구 안지랑 골목 '낙원곱창마을 곱창전골',

'자연맛남 제주 옥돔세트' (대·4마리), '이맛에바나나 통영 자연산 들머리·황머리 숙회' (1kg) 등이 있다.

'전국 랜선 맛 기행' 기획전의 모든 상품은 '선물하기' 서비스가 가능하다. '선물하기'는 배송지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온의 지난달 밀키트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8% 증가했다.

김장훈 롯데온 식품팀장은 "비대면 명절 탓에 고향에서 먹던 차려 음식과 각 지역 맛집의 음식을 맛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전국의 특산물과 음식을 모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고향을 찾지 못했더라도 이번 기획전을 통해 전국 특산물과 대표 맛집 메뉴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